

이성자, 〈오작교〉, 1965

<오작교>는 한국적 정신성과 동양의 유산을 서양적 추상미술과 결합하여 한 화면에 담아낸 이성자 예술 세계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박 해 미

GALLERYHYUNDAI

원형, 삼각형, 사각형의 도형들과 화면을 가늘고 길게 가로지른 열 십자(十)의 형상, 호를 그리며 뻗어나가는 듯한 형상들을 바라보다 불현듯 화면 가운데쯤 위치한 초승달이 눈에 들어온다. 한국적 추상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이성자의 작품 <오작교>이다. 오작교가 우리의 옛 이야기 속 견우와 직녀의 애절한 만남을 돕기 위해 까마귀와 까치가 은하수에 놓은 다리라는 것을 떠올리면 이 밤의 풍경은 어쩐지 시리게 다가온다. 작가는 어떤 마음 아픈 사연을 이 다리 위에 수 놓은 것일까. 조병화 시인은 이 작품을 두고 “이것은 사랑하는 마음 사이에만 놓이는 / 동양의 다리다.”라는 시를 지었다.

이성자(1918-2009)는 1918년 전라남도 광양에서 출생했다. 1935년 진주일신여자고등보통학교(현 진주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일본 유학길에 오른다. 미술 전공이 아닌 가정과를 선택한 작가는 일본 유학 생활을 통해 서양화와 근대미술, 각종 전시회를 접할 기회를 여러 차례 갖게 되었다. 이는 후일 그가 화가로서 변모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이성자는 명문가 의사와 결혼하여 세 아들을 낳고 유복한 가정 주부로 살아가다. 하지만 행복했던 시절도 잠시, 남편과의 불화로 화목한 가정이 조금씩 깨져가던 때 6.25전쟁이 발발한다. 이 시기에 이성자는 세 아이를 남편과 시댁 가족에게 빼앗기고 참담한 마음으로 피난길에 올라 부산에 정착한다. 끝날 것 같지 않은 암울한 시간을 보내던 때, 지인의 도움으로 프랑스 파리로 떠날 기회를 갖게 된다. 당시 그는 프랑스어 한마디도 구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타지에서 자신의 생계를 이어갈 방법도 찾지 못한 채였지만 그저 절망적인 현실을 잊기 위해 프랑스로 떠난다.

“즐거웠던 추억이며, 가슴 아픈 기억들, 모든 것이 태평양 한가운데 파묻혀 사라져갔다. 평화로운 나라 프랑스. 불어 단어 한자 모르는 채로, 가진 것 없는 무일푼의 무명의 처지로서 이국땅에서 다시 태어난 셈이다.”¹⁾

1. 『이성자』, 열화당, 1985.

파리의 의상디자인 학교에 입학해 공부하던 중 이성자의 남다른 재능을 알아본 선생의 권유로 그는 곧 아카데미 그랑드 쇼미에르(Académie de la Grande Chaumière)에 입학해 회화와 조각, 판화 수업을 받게 된다. 이곳에서 이성자는 앙리 고에츠(Henri Goetz, 1909-1989)에게 추상화를 배우며 현대적 추상미술에 눈을 뜬다. 몽파르나스 보지라르 거리 98번지에 작은 방을 얻고 정물과 풍경을 주로 그리며 그림 연습에 매진하는 동시에 고에츠의 화실에서 2년간 사사하였다. 그러나 극단적 모더니스트였던 고에츠와 뜻이 맞지 않았던 이성자는 그를 떠나 자신만의 추상미술 세계를 개척하기 시작한다.

1950년대 말, 이성자의 추상미술이 본격화된다. 사각형, 마름모꼴, 삼각형, 원형 등의 기하학적 도형을 화면에 색면으로 크게 구성하고, 그 질감은 거칠게 처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1960년대에 접어들면 화면의 거친 질감 처리가 더욱 심화된다. 마티에르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 면으로 처리한 도형은 사라지고 점차 다양한 색상의 교차하는 점들로 화면을 채운다.

“극동의 국가에서 홀연히 찾아온 한 여성을 통해 프랑스 사람들은 어렵게나마 명경같이 맑고 고운 한국인의 심성과 정서를 들여다 보았다. ‘모국의 궁전과 사원들이 숨겨져 있다’(가스통 딜)거나 ‘순수한 원형질에 가까운 신선한 매력’(최순우)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배경에서이다.”²⁾

<오작교>는 바로 이 시기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한국적 정신성과 동양의 유산을 서양적 추상미술과 결합하여 한 화면에 담아낸 이성자 예술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오작교>라는 작품의 제목이 시사하는 것처럼 이 작품은 한국을 떠나 프랑스에서 생계를 이어가던 이성자의 고국과 세 아이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을 담고 있다. 때문에 이 그림은 ‘오작교’를 묘사하고 있는 그림임과 동시에 그 자체로 작가를 한국과 연결해주는 다리가 된다. 우

2. 서성록, 「지상에서 영원으로; 이성자의 예술 여정」, 『이성자』, 마로니에북스, 2018.

주적 질서와 자연의 생명력을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시도는 작은 점과 선으로 빼곡하게 채워진 마티에르로 귀결된다. 여기에 그가 어린 시절 보고 자란 한국의 전통문화로부터 차용된 음양, 팔괘와 같은 문양과 이미지가 도식화되어 그려졌다.

“나는 한국 땅에서 태어난 한 사람의 평범한 한국 여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낳아준 한국의 흙과 그리고 내가 여자라는 것에 대해서 늘 절실하게 의식하고 있어요. 나의 작품에는 아마 이러한 의식이 조형 감흥으로서 늘 즐겁게 반영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어디까지나 한 사람의 한국 여인으로서 그리고 여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그저 담담하게 즐겁게 그려나갈 뿐입니다.”³⁾

이성자의 첫 현대화랑 전시는 1974년 개최된다. 1985년 열린 『이성자 60년 대전』에서는 그의 초기작에 속하는 1960년대의 대표작들이 소개되었다. 이 전시를 맞아 현대화랑은 이성자의 화업을 조망하는 화집을 기획하고 출간했다. 당시로서는 보기 드물게 한국어, 영어, 불어의 3개 언어로 제작되었고, 유홍준과 윤철규가 편집위원으로 참여하여 작가의 연구에 깊이를 더하였다. 2018년 이성자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이성자의 추상회화 1957-1968』의 전시 서문에서 유홍준은 “이성자의 추상회화에는 따뜻함이 깃들고 무언가의 깊은 서정이 밑모를 심연에 깔려 있는 것만 같다”고 평했다.⁴⁾ 그의 회화 작품 대부분은 아픔, 슬픔, 그리움의 감정으로부터 시작되었을지 몰라도 그 결과는 밝고 아름답다. 이는 유홍준이 지적한 것처럼, 프랑스 현지에서 이성자 회화가 동양적이며 신비로운 회화로 받아들여지고 자신의 개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큰 이유이다.

3. 『이성자』, 열화당, 1985.

4. 유홍준, 「내가 만난 이성자: 추상화가 아름다운 것을 가장 먼저 보여준 그분」, 『이성자의 추상회화 1957-1968』, 갤러리현대, 2018